

“불법행위 엄정 감시해 공명선거 정착”

광주·전남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선관위, 인터넷방송 개국 선거정보 제공

6·4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선관위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공정선거지원에 나섰다.

선관위는 또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국 'NEC-TV'를 개국하고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선거 정보도 제공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되고, 이번 선거가 최대 5일을 쉼수 있는 '황금연휴' 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 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화순군 하니읍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공정선거지원단 500여명과 단속직원 등 총 5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행사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정선거지원단의 행동강령 낭독과 공정선거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고, 공정선거지원단의 단속활동을 위한 실무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공정선거지원단은 현장에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관련 정황 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선관위도 이날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170여

명이 참여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 척결 퍼포먼스

이 밖에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도 이날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각 지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전국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원 6400여명과 직원 200여명 등 66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정당·선거사무소를 돌면서 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돕게 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인터넷 방송국 NEC-TV를 개국했다.

인터넷 방송 NEC-TV는 24시간 방영되며, 개국 첫날인 이날 선관위 전·현직 홍보대사의 개국 축하메시지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정보를 방송한다. 이날 중순에는 대한민국 선거의 발자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매주 '선거 포커스'를 제작·편성해 한 주의 선거 관련 이슈나 선거일정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투표·신형투표기분류기·투표절차·개표절차 등 선거정보를 기획 영상물로 제작해 방송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5월 30~31일), 선거일 투·개표(6월 4일) 현장도 생중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이르면 6일 출마 선언

다음주 예비후보 등록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다음주 초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장 교육감 측은 1일 “선거법 제약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이르면 6일경 출마 선언을 한 뒤 다음주 초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당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후보 단일화 일정에 맞춰 이날 중순경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었으나, 추대위원회가 출범 닷새만에 해산하면서 출마선언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법상 현직 단체장은 선거운동에 크고 작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육감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전교조 출신 예비후보인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을 비롯해 교원을 고구려대 이사장, 김영수 광주발전연구소 이사장, 김왕복 전 조선이공대 총장,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등이 뛰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5·18기념곡 지정 국회에 협조 요청

광주시는 1일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5·18민주화운동 34주기에 앞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6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고, 국가보훈처장도 같은해 7월 1일과 12월 3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국회의결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회의 결의한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돼 올해 5·18 34주기가 국민 대통령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가보훈처에 보냈다. /채희종기자 chae@

최문기 장관 4일 광주 방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4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리는 '2014년 제1회 창조특허기술박람회' 참가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에서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 개최식에서, 전남대로부터 기술 출자를 받아 설립된 (주)가든플란트 등 4개의 연구소 기업 대표에게 등록증을 수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뒷산과 앞산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토굴 앞에는 진분홍색 꽃잔디와 하얀 산복련 꽃, 복사꽃들이 흐드러졌다.

오후 4시, 산책을 나가는데, 봄벌 쏘아지는 쪽과 밭에서 이웃집 60대 중반의 부부가 쪽과를 뽑아 밭 언덕에 버리고 있다. 그들은 연일 천 광풍 되는 밭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쪽과들은 지난해의 가을 김장철에 팔려 나갔어야 했는데, 그때 값이 워낙 싸고 찾는 사람이 없어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것들은 이 봄에도 팔려야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 너무 자라 뻗어버려버렸다. 주인이 그것을 뽑아다가 밭 삼아 삼아먹을 수도 없고, 고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캐서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 부부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쪽과 재배 농가가 다 그렇다. 내 아내의 말

한다. “봄 쪽과는 가을 것하고 달라서 뿌리가 너무 깊이 뻗어 뽑아내기가 무척 힘들답니다.”

쪽과들이 잘 되어버리면 이곳 쪽과는 통값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어 중국의 쪽과가 들어온다면 이곳 사람들은 쪽과마저도 재배할 수 없게 된다.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쌀농사, 쪽과 농사를 짓는 일반 농민들의 삶은 팍팍해 질 수밖에 없다.

농로를 걸어 바닷가로 들어선다. 아득한 아랫목에까지 썰물이 저 있다. 갯벌은 드넓다. 이곳 득량만 연안의 갯벌에는 칠발년 전까지만 해도, 바지락과 주꾸미와 낙지와 키조개가 풍성하게 생산되었다.

공동양식장을 한 해 한 차례에 걸쳐 일주일간씩 개장했는데, 한 집에서 거의 백만 원 이상씩 캐내곤 했다. 나의 늙은 아내는 자식들과 아는 친지들에게 10킬로씩 부쳐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지락을 캐고 낙지, 주꾸미를 잡아서 논밭 사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다.

화사한 봄날의 우울한 산책

오직 2만여 평에 심은 단 한 농부만 바닷가 쪽과 밭에 인부를 끌어들여 서 울 개락동시장으로 내고 있다. 값이 바닥을 치고 있으므로 겨우 인건비를 건지는 선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출하하고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

여자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하루 6만 원이다. 오전 일곱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11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이다. 농부는 일이 끝나자마자 인건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해도 인부 구하기가 어렵다.

그는 “지금 늙으신 저분들이 더 늘어나오지 않게 되면 이 쪽과 장사도 인부 없애 먹을 수 없을 것 같소.”하고 말한다.

아내는 이웃 밭 언덕에 버린 쪽과 가운데 부드러운 것만 골라 한 수레 담아가다가 파김치를 담가 서울의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새콤하게 익은 것을 식탁에 올린다.

내가 사는 장흥 안양 울산마을을 비롯하여 신촌마을, 보성의 회천마을 일대는 쪽과단지이다. 바다를 안고 있는 이 지역은 안개가 잘 끼지 않아 쪽과 재배 적지이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마땅한 작물이 없어 너도나도 그것을 재배하는데, 만일 웃다리, 경기도·충청도·전라북도 쪽의

한데 지금은 그것들의 씨가 말라간다. 공해로 인해 바지락과 주꾸미와 낙지들이 기를 퍼지 못하는 것이다. 밭갈이 무렵의 바지락이 가장 맛있는 법인데 마을 어촌계장은 공동어장 개장할 임무를 내지 않고 있다.

어장에 나가지 않은 어선들은 마른 갯벌에 얽혀어 있고, 갈매기들과 황새들과 딱조새나 갯벌낙지 잡는 야나들 네댓은 썰물과 무른 갯벌이 만나는 곳에 있다.

모래밭에서 두 어부를 만났다. 한 어부는 소리로 주꾸미 잡이를 전문으로 하고, 다른 한 어부는 깊은 바다에서 낙지잡이 통그물 어업을 한다.

주꾸미 잡이 어부에게 인사말 겸해서 어황을 물었다. “많이 잡히는가?” 어부가 대답한다. “사흘 만에 한 번씩 나가서 잡아오는데, 겨우 담배 값이나 하요.”

낙지잡이 어부에게 얼마씩이나 잡히는가 물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겨우 풀값이나 하요.”라고 말한다.

나는 해줄 말을 잃어버린다. 그들의 얼굴이 밝지 않으니 내 봄날의 산책이 명랑해질 수 없다. 나는 나의 길다란 그림자를 밟으며 모래밭을 떠난다. <소설가>

15P-13층

- 실평-9P
- 방향-무등산
- 대출-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5천만원
- 매매가-3천2백만원

29P-사무실 적합

- 실평-18P
- 방향-하천
- 용도-주거겸 사무실
- 대출-2천5백만원~3천만원 가능
- 임대-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1억 정도
- 매매가-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전체 올수리

- 실평-33P
- 방향-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주거겸 사무실
- 대출-5천만원~1억원 가능
- 임대-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2억 정도
- 매매가-1억5천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녀 직원모집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남 4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 여 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전화 상담 사절)